

interview

'자비의 향기 육영수' 펴낸 소설가 남지심씨

보살행 실천한 육 여사의 삶 "정치와 무관하게 봐주었으면"

"육영수 여사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복을 공덕으로 회향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또 불자들이 이상으로 추구하는 보살의 모습을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비의 향기 육영수>를 발간한 소설가 남지심씨(사진). 남 씨는 "작년 여름 어느 모임에서 옆에 앉았던 한 부인으로부터 '학처럼 목련처럼 곱고, 백합처럼 향기로운 분이 육영수 여사였다'는 얘기를 듣고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후 남 씨는 시인 박목월 씨가 지은 육영수 여사 관련 책을 읽고 본격적으로 집필을 결심하게 됐다고 한다.

남 씨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정치가의 아내였고 정치가의 어머니이기에 망설였었다"며 "이 책을 정치와 무관하게 봐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우리의 가슴속에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의 불을 지펴주었던 자애로운 어머니같은 분. 그런 그리움이 사람들 가슴속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데 육 여사에 대해 실상 아는 것은 10%도 안된다"고 말하는 남 씨.

남 씨는 "육 여사를 잘 모르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 두 달 동안 원고지 2매도 채우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1만 배 정진을 하며 극복했다"며 "가난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힘을 주었던 육 여사의 인간미만이라도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책은 38세라는 젊은 나이에 청와대 안주인이 된 뒤 12년간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뒤 49세의 나이에 세상을 마감한 육영수 여사의 5세부터 임종 때까지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항상 낮은 곳으로 임하며, 남편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에 항거하던 학생들까지 어루만져주었던, 절에 가면 작은 방을 손수 청소할 정도로 겸손하며 늘 기도 정진하던 영부인의 모습이 이채롭다.

이 책은 영부인으로서보다 한 여성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고, 지혜로울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김원우 기자

자비의 향기 육영수

남지심 지음 랜덤하우스 | 1만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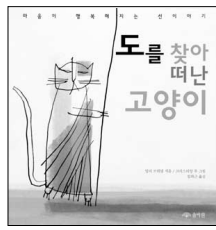


고양이 스님, 진리 찾아 떠나다

"오늘 가는 곳은 어디지요?" "가는 곳이라? 우린 이미 오지 않았느냐?" 스님이 엄격한 어조로 딱 잘라서 말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어리둥절해진 돌망이가 물었다.

"그래, 돌망이.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노력에 힘쓴다면, 그래서 현재에 완전히 밀착된다면, 꽃과 바람과 새와 지나가는 순간순간을 받아들이고, 비교나 소망, 회한, 오지 않은 미래, 지나가버린 과거 등으로 도피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덧없는 형상에 초탈해 있으면서 동시에 그것과 잘 어울리고 있다면, 우리는 진리와 함께 살고 있는 셈이란다. 신은 길의 어느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길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 본문 93-94쪽 중에서



도를 찾아 떠난 고양이 앙리 브뤼넬 지음 | 솔바람 | 1만2000원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순례길에 나선 고양이들. <도를 찾아 떠난 고양이>는 진지하면서도 익살스럽고 때론 반듯한 고양이들의 깨달음에 이르는 여정을 우화처럼 재미있게 엮었다.

늙은 고양이의 순례를 보고 있으면 삶에 대한 일깨움과 깨달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감동을 느끼게 해준다.

즐거리는 이렇다. '나비'라는 늙은 고양이는 행자 시절을 거쳐 스님이 되자, 유일한 제자인, 철부지이다 버릇도

제자 뿔망이와 떠난 구도여행 통해 사성제 팔정도 육바라밀 이해 쉽게

없는 '뿔망이'를 데리고 영적 탐구의 길을 나선다. 나비와 뿔망이는 이곳저곳의 절을 거치며 불교에서 가르치는 지혜의 모든 단계인 사성제, 팔정도, 육바라밀을 하나하나 깨우쳐 나간다.

운수남자 나비 스님은 순례를 끝내고 난 뒤 제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모든 말이라는 것은 심지어 말이라 해도 뜻을 넘어서서 넘쳐흘러 노래를 부르고 우리를 제 여행길로 데리고 간단다. 현재에 지나가는 이 순간에 전적으로 밀착하는 것은 침묵뿐이다"

이 책은 불교의 '선(禪)'과 기독교의 '사랑'을 연결하여,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 사이를 쉽게 오가도록 이끌어준다. 앙리 브뤼넬 특유의 웃음



과 지혜가 묻어나는 마음이 행복해지는 '선(禪)' 이야기는 어려운 주제를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특히 크리스티안 루의 아름답고 정감 있는 그림은 늙은 고양이의 여정을 더 돋보이게 한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반짝반짝 빛나는 세상 사는 지혜



한운은 지음 제논 스님 역 부글북스 1만2000원

"맑은 하늘, 밝은 달빛 아래 어느 하늘을 날 수 없을까만 불나방은 유독 밤의 등불 속으로만 뛰어든다. 맑은 샘물과 푸른 대나무 그 어느 것인들 먹을 수 없을까만 올빼미는 기껏해야 썩은 쥐만을 즐긴다. 아, 이 세상에서 불나방과 올빼미처럼 되지 않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 '나방과 올빼미 같이 어리석은 삶' 중에서

한운은 채근담2

한운은 지음 제논 스님 역 부글북스 1만2000원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동양의 지혜서 <채근담>. 채근(菜根)은 '나무뿌리'라는 뜻이다. 담(譚)은 '이야기'를 뜻한다.

<채근담>은 다른 어떤 고전과는 달리 그 뜻이 쉽고 명쾌하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적절한 마음가짐과 몸가짐에 대한 충고이자 안내서이다.

이전에 나온 <한운은 채근담>은 1915년 한운은 스님이 저술하고 1917년 신문관에서 발행했던 것이다. 현대어로 읽기 쉽게 풀어 옮긴 <한운은 채근담>은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을 모았다.

홍자성의 <채근담>을 바탕으로 우리 현실에 맞도록 한운은 스님이 쓴 이 책은 인간 삶에 대한 통찰이 느껴진다.

<채근담>은 주로 세파에 시달리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신조와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는 즐거움을 말하고 있다.

특히 일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폐쇄된 시대를 살다 간 선비의 깊은 고뇌를 함께 담아내고

있는등 인생에 대한 달관이 돋보인다.

송나라 때 왕신민은 "사람이 항상 나뭇 뿌리를 씹어 먹을 수 있으면 곧 백가지 일을 가히 이루리라"고 했다.

"나무뿌리를 먹듯 답답하고 평범하게 세상사에 임할 수 있다면 누구나 삶을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한운은 채근담>은 분명한 삶의 나침반을 제시하고, 교훈을 안겨준다.

한운은 스님은 채근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쇠파리가 천리마에 붙어 달리면 빠르게 달릴 수 있지만 천리마의 엉덩이에 붙어 달린다는 그 수치를 벗기 어렵다. 담쟁이가 소나무를 의지하면 높이 오를 수가 있지만 소나무에 의지하여 기어오른다는 수치를 벗기 어렵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은 힘든 풍상을 겪고 살아도 세나 물고기처럼 사람에게 빌붙듯 살지 않는다"고.

스님은 마음이 괴롭고 안식이 필요할 때, 이 책을 보라고 권한다. 그러면 마음이 저절로 가벼워진다고.

만공 스님의 '마음 비우기'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만공 스님 지음 | 성각 스님 역 오후에 | 1만5000원



근대 한국 선의 중흥조인 경허 스님의 제자로 스승의 선지를 충실히 계승하여 선종을 진작시킨 위대한 선지식 만공 스님.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는 일제 치하 일본의 치욕스러운 불교 정책을 쇠신하는 선봉장이기도 했던 만공 스님의 첫 법어집이다. 남해 망운암 주지인 성각 스님은 만공 스님의 법문들을 한 데 모으고, 각 법문마다 현대적 의미의 해석과 주석을 달았다.

이 책에 소개되는 만공 스님 법문의 주요 핵심은 바로 '마음 비우기'이다. 스님은 "번뇌를 비우니 마음이 고요해진다"며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번뇌의 근원은 불교의 주요 화두인 탐욕과 집착에 있다"고 밝힌다.

스님은 또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탐욕과 집착의 굴레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것을 권고한다.

김원우 기자

yosiamun.com 추천도서

- 산사로 떠나는 여행 정인수, 김천미, 1만2000원, 문예마당
 - 절수행일문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6000원, 조계종출판사
 - 한 사상과 다이내믹코리아 최동환, 1만8000원, 지혜의나무
 - 마음이 단순해지는 선화 김홍길, 1만2000원, 마음산책
 - 꿈 미래의 열쇠 현오 스님, 2만원, 대유학당
- 도서주문 (02)2004-8219

출간 1年餘만에 10판 발주! 불교서적 판매 베스트 1위 계속 유지!

"고금 동서 성별 종교에 관계없이 사람이 죽으면 지은 업을 따라 六道에 轉生한다. 대부분은 악도로

어떻게 살면 우리는 하늘이나 인간 몸 다시 받아 날 것인가?

윤회생사도 벗어날 수 있는지?

그 길을 여기 이 책자는 소상히 가르쳐주고 있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깊은 三昧에 드는 자재만현 큰스님의 사자후

시대를 초월한 성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존평!

여섯명의 국내 최고 지식인·학자들이

'이 진경에는 수십 수백에 이르는 가르침이 현란하고 황홀하게 펼쳐져 있으며 모두 주옥같은 가르침들이다 ...'

'이 책은 지금까지 어느 시대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없는 미증유의 實經 ... 불교의 가르침을 극명하게 정리해 준 이 시대의 고전 ...'

21세기 불교 수행 문화의 신지평 여사다...' 라고 입을 모았다.' 510쪽 값 15,000원

* 추천 현지사와 부산분원에서만 구입가능합니다 홈페이지 http://www.hyunjisa.or.kr